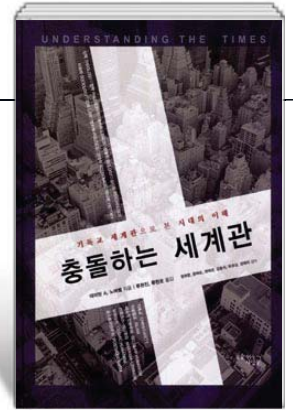


충돌하는 세계관

◎ 최태연 (백석대학교 교수, 실행위원)



데이빗 A. 노에벨 저 | 류현진,류현도 공역 | 꿈틀이루는사람들

이 책의 원제는 『우리 시대를 이해하기』(Understanding the times)이다. 저자 데이빗 노에벨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여섯 개의 굵직한 세계관이 대결하고 있는 전투 상황으로 인식한다. 전투는 이미 시작됐다! 이 전투는 때로는 문화적으로 엘리트트하게, 때로는 학자들의 논쟁 속에서, 때로는 피비린내 나는 테러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 노에벨은 이 세계관의 전투를 신문가판대에서, UN와 국회의사당에서, 세계 일류의 대학들과 칼리지의 강의실에서 본다. 이 세계관들은 매주 7일내내 어디에선가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대결하고 있다. 이 상황에서 그는 모든 생각과 관념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고후 10:5)하라는 성경의 메시지에 주목한다. 그는 C. S. 루이스를 따라 기독교세계관을 변증하는 임무를 과감하게 수행하고자 한다. 루이스는 이미 한 세대 전에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불필요하게 자신들의 신앙적 입장을 비기독교인들에게 양보하는 태도를 개탄하면서 ‘기독교인의 색깔’을 드러내라고 충고했던 적이 있다. 그래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삶이 정치적·윤리적 신념뿐 아니라, 신학, 철학, 윤리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의 분야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21쪽)를 이 책에서 진지하게 다룬다. 그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이런 총체적인 신념의 집합체인 ‘세계

관’(worldview)의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구체적으로 기독교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 노에벨의 확신은 세계관은 모든 사람의 신념과 사고에 영향력을 행사하여 마침내는 사회와 문명의 성격까지도 바꿀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이 책 안으로 들어가 보자. 이 책의 독특성은 우선 독특한 구성방식에 있다. 먼저 노에벨은 위에서 언급한 대로 세계관을 총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학문영역 10개를 선정한다. 신학, 철학, 윤리학, 생물학, 심리학, 사회학, 법학, 정치학, 경제학, 역사학이 그것이다. 각 학문영역은 이 책의 서론과 결론을 빼고 본문 10장을 차지한다. 그다음엔 각 장을 이 시대를 얻기 위해 격돌하고 있는 6개의 대표적인 세계관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이들 세계관의 이름은 성경적 기독교세계관, 이슬람교 세계관, 세속적 인본주의 세계관, 마르크스-레닌주의 세계관,

뉴에이지 세계관, 포스트모던주의 세계관이다. 이러한 독특한 구성은 6가지 세계관의 근본적인 차이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돕는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면 1장은 <신학>인데 1. 기독교 신학, 2. 이슬람교 신학, 3. 세속적 인본주의 신학, 4. 마르크스-레닌주의 신학, 5. 뉴에이지 신학, 6. 포스트모던주의 신학이라는 6개의 단락으로 구성된다. 제임스 사이어가 『기독교세계관과 현대사상』에서 기독교유신론, 이신론, 자연주의, 허무주의, 실존주의, 동양 범신론적 일신론, 뉴에이지,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8개의 세계관을 유형적으로 서술한 이래, 이를 다시 학문영역 별로 분석한 책은 이 책이 처음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면 이 책의 구성을 이해하기 위해 1장 <신학>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노에벨에 따르면 모든 세계관의 토대에는 고유한 신학이 있다. 즉 초월적 존재에 대한 신념은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이든지 어떤 세계관에나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어서 세계관의 다른 내용에 지배하는 통제적 믿음을 제공한다.

첫째로 기독교 신학은 삼위일체 유신론(Trinitarian theism)을 주장한다. 유대교나 이슬람과 달리 기독교는 모든 존재를 창조한 하나님이 영원히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로 공존하면서도 한 분인 인격체라고 믿는다. 이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평한 심판자면서 동시에 사랑과 은혜의 구원자이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드러난 특별계시와 모든 사람에게 언제 어디서나 주어지는 일반계시를 통해 인간에게 알려진다. 일반계시는 목적론적 신 존재 논증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세계가 하나님에 의해 설계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지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개인적으로 구원받는데는 특별계시가 반드시 필요하다.

둘째로 이슬람 신학은 일종의 유니테리안 유신론(Unitarian theism)으로서 세계를 창조하고 심판하는 유일신인 알라 외에는 어떤 신도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역할까지도 인정하지만, 그의 신성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부정한다. 따라서 이슬람 신학에서 삼위일체론은 죄 중에 심



각한 죄이다.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에게 알라를 알게 해주는 이는 마지막 예언자 무함마드이며 그의 가르침인 코란(꾸란)이다. 코란은 절대적이고 최종적인 계시이다. 그래서 코란의 명령에 무조건 순종해야만 알라의 심판을 면할 수 있다. 이슬람 신학에서는 심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 심판을 피하려면 모든 무슬림은 신앙고백과 기도과 라마단의 금식과 자선행위와 메카 순례를 해야 한다. 거기에 죄와 유혹에 대한 싸움과 이교도에 대한 싸움을 의미하는 지하드(성전)를 더할 수 있다.

셋째로 세속적 인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원칙은 초자연적인 모든 것을 부정하는 신념이다. 존재하는 것은 오직 자연적인 것이다. 따라서 이 세계관은 유물론과 무신론에 매우 가깝다. 우주는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고 종교적 믿음은 신화와 미신에 불과하다. 독보적인 인본주의자인 존 듀이는 인류에게 필수적인 도덕성과 민주주의의 이상을 위해 초자연적인 기독교를 포기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1980년의 <인본주의 선언>은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세속적 인본주의자는 유물론자, 무신론자, 이성주의자, 혹은 회의론자일 수 있으나, 모두 우주를 위해 어떤 신성한 목적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한 것을 발견한다.”(92쪽)


넷째로 마르크스-레닌주의 신학도 무신론에서 출발한다. 이미 마르크스가 베를린대학의 ‘젊은 헤겔주의자’의 모임에서 포이어바흐의 영향 아래 무신론자가 된 이후, 모든 마르크스-레닌주의자는 무신론자가 되었다. ‘과학적’이라는 수식어 아래 그들의 신앙은 유물론과 변증법이 되었다. 기존의 종교는 환상이며 인민의 아편이다. 이러한 믿음 아래 1918년 소비에트 헌법은 사제와 성직자를 ‘부르주아 계급의 중’으로 규정했고 1950년대까지도 기독교의 창시자 예수 그리스도가 허구적 인물이라는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선전했다. 러시아의 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말대로 공산주의의 가장 큰 문제는 경제적인 것이 아니고 무신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로 뉴에이지 신학은 인간이 신이라는 믿음에서 출발한다. 이 신학에 따르면 모든 인간은 신의 일부이고 신과 존재론적으로 하나이다. 특히 뉴에이지에서 중요한 문제는 인간의 의식(consciousness)이다. 인간은 의식의 고양을 통해 자신의 신성한 힘을 발견하고 우주적 신성과 연결된다. 만유에 내재하는 이 신성은 물질에 생기를 주며 인간의 본성을 이룬다. 역사의 목적도 모든 사람이 이 신성에 도달하고 우주와 온전한 통합을 이루어 하나가 되는 일이다.

여섯째로 포스트모던주의는 신은 없으며 절대적 도덕법도 없으며 인간에게 최종의 심판자가 없다는 믿음에서 인본주의나 마르크스주의와도 통한다. 이 점에서 많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이 니체의 영향을 받았다. 니체는 19세기에 신이 더 이상 필요없다는 확신을 가

졌고 모든 가치와 도덕은 주관적이며 약자들이 자신을 보호하는 장치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폈다. 인류의 죽음을 예언한 푸코처럼 대부분의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무신론자이다. 그들은 모든 종교와 도덕과 학문의 근거로서 최종적 실재나 영원한 진리를 부정한다. 그들에게 남는 것은 실제의 다원성과 모든 의미의 다의성이다. 이 신념은 기독교에도 영향을 주어 종교다원주의와 포스트보수주의를 낳았다.

이런 방식으로 저자 노에벨은 성경적 기독교세계관의 입장에서 다른 5가지 세계관을 서술하고 비판한다. 그러나 서평자가 보기에 이 책의 저자가 간과한 우리 시대의 거대한 세계관이 하나 더 있다. 그 이름은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이다. 그것은 세속적 인본주의나 마르크스-레닌주의처럼 서구 기독교문화에서 썩어 트고 배양되었지만, 성경적 기독교와는 다른 세계관을 형성했다. 자유주의적 자본주의 세계관은 앞의 두 세계관과는 달리 저자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무신론을 신학으로 삼지 않고 유신론을 허용한다. 그러나 이 세계관이 기독교의 신학은 용납하더라도 기독교의 윤리학이나 사회학이나 경제학과는 여러 부분에서 충돌한다. 오로지 소유의 자유와 효율성을 원리로 삼는 자본주의 세계관의 심각성을 고민하지 않은 저자의 관점 역시 미국 복음주의의 ‘세계관’의 한계일 수 있다.



최태연 숭실대와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철학적 해석학으로 석·박사를 취득하였고 현재 백석대학교 기독교학부 기독교철학전공 교수로 기독교세계관, 기독교예술철학, 기독교와 과학 등을 강의하고 있다. 한국적 기독교세계관의 정립과 개혁주의 미학과 과학철학 분야에 관심이 많으며 저서로는 『개혁주의와 과학철학』, 『폴 리퀴르의 변증법적 해석학』, 『Dialektik der Interpretation』, 『신앙과 논리』(공저), 『종교개혁과 미술』(공저) 등이 있다.